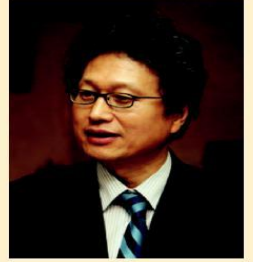


## 서문



『국제저널 무형유산』 12 호의 발간을 맞이하여 지면을 통해 인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2 호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무형유산에 관한 글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전 세계의 많은 무형유산 학자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무형유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여 소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준 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투고된 많은 논문 중에서 훌륭한 글을 선정하여 책자에 실리기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수고를 감내하고 열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알리산드라 커밍스 편집장 이하 편집자문위원들, 텍스트 에디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국제저널 무형유산』은 10 년 이상 꾸준히 발간되면서 무형유산 표현의 무한한 다양성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측면과 아울러 전 세계 박물관 관계자, 학자, 연구자들 간 살아있는 무형유산의 본질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저자들의 다양한 무형유산의 연구, 실재를 담고 있는 논문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박물관에서 무형적인 요소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4 년 서울 ICOM 대회 이후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실행한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속문화의 해'를 통해 우리 관 학예사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의 생활상을 기록, 목록화하고 보고서를 내고, 아카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급속하게 소멸되어 가는 자료는 잘 보존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저널 무형유산』발간, 『박물관과 무형유산』국제학술대회 개최, 다양한 장르의 전통민속공연 운영, 무형유산관련 박물관 전시, 교육, 전통공연 실시 및 아카이빙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무형유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5 년에는 『국제저널 무형유산』발간 1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의 도전: 박물관과 무형유산, 지역사회'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10 주년 회고와 전망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박물관이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현대 무형유산 정책이 지향하는 문화 다양성, 지역 공동체 강화의 거점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박물관은 소장품처럼 박제되어 있는 유물을 연구, 조사하고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유동적인 무형유산을 박물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해서 지역의 생활 관습, 표현, 지식을 조사, 기록한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도출해 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 관계자, 지역민, 이해당사자 등은 신뢰와 소통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관계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주민, 무형유산 계승자, 전통 장인 등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여 무형유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소중한 무형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보전될 것입니다. 도시에 위치한 박물관들은 지역사회와 교류하면서 상호 문화를 이해,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의 문화 정체성이 위협받지 않고 무형유산의 보존을 지속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